

Subject : CJ 이재현 회장을 국감 증인채택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_모비프렌 허주원 대표

From : jwheo@mobifren.com

To :

webmaster@bs.co.kr,mscho@bs.co.kr,soho@yna.co.kr,godot@hani.co.kr,han.younghye@joongang.co.kr,leek0428@yn.co.kr,purple@yunghyang.com,s.won@newsis.com,wit@mediatoday.co.kr,presscho@asiatoday.co.kr,sooju@yna.co.kr,press@neconomynews.com,yjpe@nnews.com,lee88@mt.co.kr,unon@mri.kr,kej@newstoday.co.kr,sisafocus05@sisafocus.co.kr,news1213@naver.com,norah@vreport.co.kr,shj2012@vreport.co.kr,webmaster@news1.kr,cjkim@hankookilbo.com,pengo@tdonga.com,tlcyloser@yunghyang.com,runaindia@bizhankook.com,smkang@donga.com,shine2562@donga.com,banghd@yna.co.kr,naun@newsis.com,greentea@seoul.co.kr,jin18@news24.com,chuli@seoul.co.kr,ikpark@edaily.co.kr,saramin@hankyung.com,ksj0810@cbs.co.kr,song1@chosun.com,coolup@donga.com,ky0285@hani.co.kr,jiwonsh@yn.co.kr,oneshot@hankookilbo.com,ming@bs.co.kr,zorro@yunghyang.com,tien@mt.co.kr,hongdoya@joongang.co.kr,bemygust@chosunbiz.com,eonki@news1.kr,spotnews@dalian.co.kr,totbro@daily.co.kr,han.minyong@tbc.co.kr,goodpoint@segye.com,kimjah@chosun.com,gayunlove@news1.kr,yum@donga.com,hijiny@rbc.co.kr,gyhyang@hankookilbo.com,ego@yna.co.kr,psk@yn.co.kr,saint@donga.com,hoya@wowtv.co.kr,san@mbc.co.kr,yhg@rbc.co.kr,thursday@mib.co.kr,pswwang@cbs.co.kr,yckl00421@chosun.com,soul@hankyung.com,<swhong@newsis.com>,<paikshow@zdn.net>,<hye555@news24.com>,<juyong@nnews.com>,<jkgyu@newsis.com>,<online@news1.heraldcorp.com>,<eunae@dt.co.kr>,<2vs2@yna.co.kr>,<2000jin@msnet.co.kr>,<wisdom21@newsis.com>,<hwang.namhee@tbc.co.kr>,<uiopki22@nplus.co.kr>,<unamoon@sportschosun.com>,<fnjs@nnews.com>,<iny327@naver.com>,<emaninny@bs.co.kr>,<jpkim@wowtv.co.kr>,<jik76@newsis.com>,<spot@sisaaweek.com>,<roh@nsightkorea.co.kr>,<serenom@kookje.co.kr>,<spot@sisaaweek.com>,<seki@today.co.kr>,<dailypop@dailynews.co.kr>,<lisa@yna.co.kr>,<배동주 기자 <ju@lyo.co.kr>,<배동주 기자 <acebbu@naver.com>,<배동주 기자 <pengo@gamedonga.co.kr>,<jpchoi@newsis.com>,<jsc5708@hanmail.net>,<한민원 <hanminwon@hanmail.net>,<백은남 <baekunnam@naver.com>

Sent : 2018-10-10 00:00:00

아래의 자료는 모비프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반 첨부파일 총 4건 (14.77MB) [전체 다운로드](#) [웹하드에 전체 저장](#)

📎 홍익락 의원님께 제안.hwp 9.97MB [미리보기](#) [웹하드에 저장](#) 📎 CJ주장 반박.hwp 868.5KB [미리보기](#) [웹하드에 저장](#)

📎 음성 011_sd-1.m4a 1009.96KB [웹하드에 저장](#) 📎 뉴스 반박 자료에 대한 증거 자료.hwp 2.96MB [미리보기](#) [웹하드에 저장](#)

📎 대용량 첨부파일 (Large attached files)

다운로드 기간 (Valid for) : 2018-10-09 ~ 2018-11-08

📎 유인물 및 톡 내용.png (5.56 MB)

제일하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입니다.

이런 메일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많은 기자분들에게 전송이 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장석춘 의원님이 모비프렌 본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민원인의 문제에 앞장서서 나서 주시고 이재현 회장의 증인신청뿐만 아니라 증인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한 말씀만 믿고 이길을 달려 왔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장의원님을 저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도울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도울 것이며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감이 넘치고 불의에 대항하는 정말 멋진 분이고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이 진행되는 지금은 더욱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의원님만 믿고 의지하며 싸우겠습니다.

장석춘 의원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본 메일은 10월 9일 8시 30분 경에 작성이 완료되어 금일 자정에 발송이 되게 되어 있는 예약발송 메일입니다.

첨부파일에서 앞의 CJ주장 반박과 뉴스반박자료는 10월 5일 아침 7시 22분에 발송을 하고

didimimi22@naver...	[FW]CJ주장 및 모비프렌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변호사 제출용)	18.10.05 07:22	18.10.05 07:22
caesar1105@naver...	[FW]CJ주장 및 모비프렌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변호사 제출용)	18.10.05 07:22	읽지않음

국회로 이동하여 아침과 점심도 거르고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폭우속 10시간 연속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홍의원님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면 제게 찾아 오실거라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힘이 들거던요.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던요.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저도 저의 삶,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던요.

CJ와 계약 3개월 만에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저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사라졌습니다.

강남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폭우속 1인 시위를 넣은 사진을 넣어 유인물 제작을 시키고 차량에서 스미트 폰으로 컨펌,

인쇄물 나오는 동안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 반에 1인 시위를 저희 직원들은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저나 저희 임직원 100명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제가 지시하면 금방 자료가 만들어 지고 카톡으로 엄청 많은 문자를 보내고요, 저녁 늦게까지 유인물도 돌립니다.

다들 피곤한 척도 안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싸워야 하는 거대한 공룡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룡도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기까지 합니다.

유튜브 영상, 유인물 홈페이지에 올리는 모든 글들이 저희가 직접 디자인 하고 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지시만 하면 한 나절이면 모든 것을 이행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홍의락 의원님께_제안"은

☐	didimimi22@naver.com	[FW]홍의락 의원님께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0.04 11:22	18.10.04 11:23	(홍의원 실)
	caesar1105@naver...	홍의락 의원님께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_긴급사항		18.10.04 11:11	읽지않음	
	jsc5708@hanmail...	홍의락 의원님께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_긴급사항		18.10.04 11:11	18.10.04 20:55	(장석준 의원)

홍의원님을 만나고 나서 CJ 이재현 회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는 길 밖에는 다른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홍의원을 만나기 전 까지는 저희 임원에게 이런 조건이면 수용을 해도 될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수용을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문자를 보냈거던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첨부의 녹음 파일도 홍의원 측에 전달이 되었었고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권력의 위협에 굴복할 바에는 아예 사업을 접겠다고 그리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어제 나온 upi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금 흥분했는지 말의 실수도 있네요,

죽기까지 싸워도 안되면 사업을 접겠다 라는 ,

이건 오타입니다,

죽으면 자연히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잖아요.

방금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upi의 [CJ ENM-모비프렌, 갑질 논란 심화...](#) UPI뉴스 | 1일 전 기사가 일요신문 기사 뒤에 조그맣게 나와야 합니까?

이것은 분명 다른 쪽지인데요.

반성을 모르고 , 갑질하다 문제 생기면 이런 추잡한 짓을 얼마나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래서 이재현 회장이 국감장 증언대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단독\] 아마존이 원한 제품 CJ가 생산 차단...CJ ENM, 모비프렌 '갑질 의혹'](#)

일요신문 | 1일 전 | [🔗](#)

[일요신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국내 블루투스 이어폰 생산업체 모비프렌을 입점 기업으로 직접 선정하면서 CJ의 '모비프렌 사장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CJ ENM은 모비프렌과 블루투스 이어폰 독점...

[CJ ENM-모비프렌, 갑질 논란 심화...](#) UPI뉴스 | 1일 전

HOME > 산업

CJ ENM-모비프렌, 갑질 논란 확산...법정 분쟁 이어지나

남경석 기자 / 기사승인 : 2018-10-08 15:56:59

[f](#) [t](#) [v](#) [g+](#) [p](#) [N](#) [b](#)

CJ ENM, "계약 연장 위한 모비프렌의 역갑질"
모비프렌,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CJ ENM과 중소기업 모비프렌의 '갑질'과 '역갑질' 공방이 확산되면서 두 회사가 법정 분쟁을 벌일 전망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7월 CJ ENM이 모비프렌에 독점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했다.



댓글 1,024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BEST](#) [f](#) 허주원 2018.10.08 06:20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입니다.

오전에 국내 10위 이내의 B법무법인과 이재현 회장과 허민회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소장 접수하기로 되었으나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대표님, 정전무님,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피치 못하게 씨제이 본사와의 기존 사건수임이 있는 관계로 허대표님의 너무도 억울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요? 저는 목숨걸고 싸울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사업을 접겠습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 15

[♡](#) 211 [💬](#) 1

모두들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소망을 합니다 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거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로 실감합니다.
지금 저와 저희직원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호소도 어떤 부르짖음도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직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외로운 함성들이 느껴집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거대한 바위도 정에 의해 깨어지니, 내가 앞장 섰네니 우리가 CJ의 고
질적인 갑질을 깨는 정이 되자고 호소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믿고 따라 주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과 돈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정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불의는 언젠가 밝혀 지게 되고,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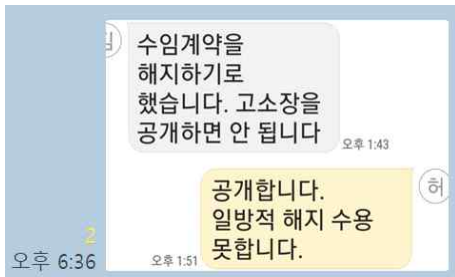
이 메일을 받는 기자분들께서도 권력에 숨죽이고 있겠지만 뜨거운 가슴도 있을 것입니다.

본 메일 주소는 대부분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습득을 하였고, 일부는 제가 아는
기자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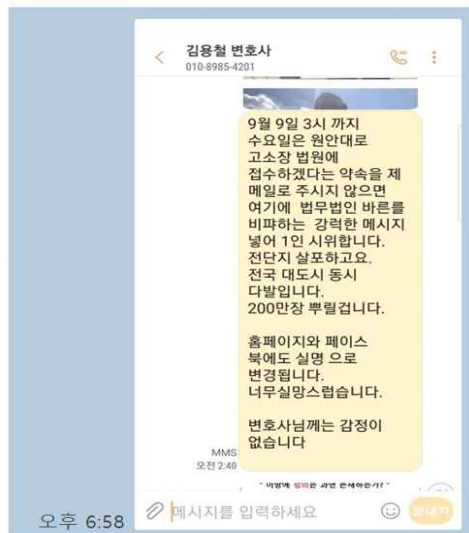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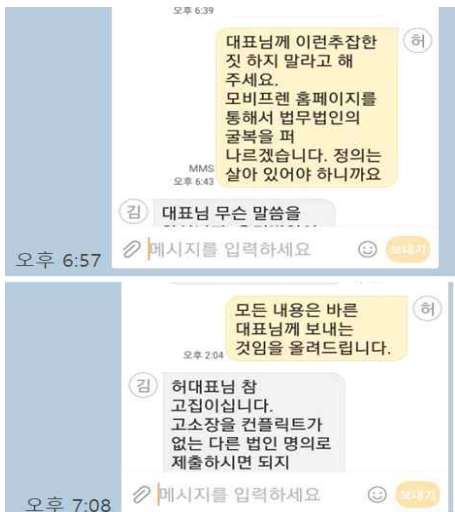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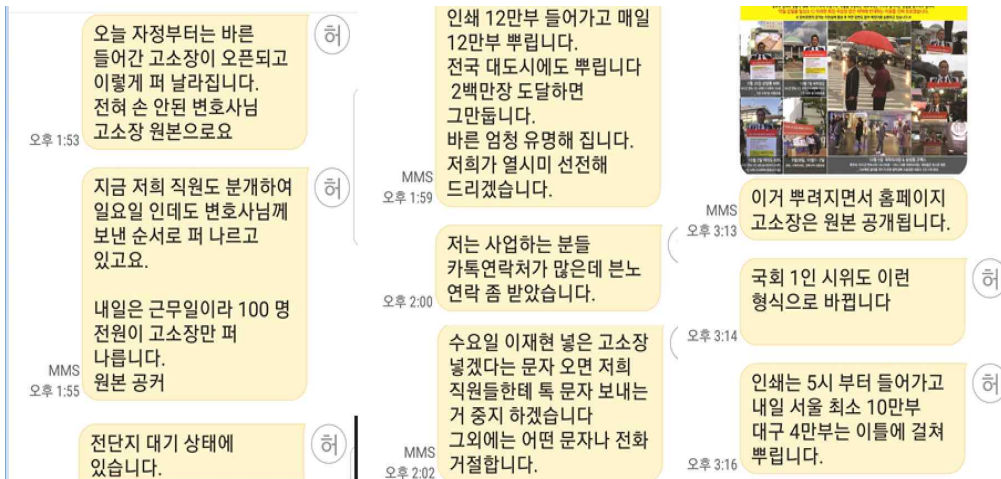
아래의 메일은 홍의락 의원실과 장석춘 의원실에 보낸 메일입니다.
참고로 홍의락 의원님께는 이 메일 외에도 두개의 메일을 더 보냈으며 비서와 비서와 비서관
께는 수없이 연락을 해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CJ의 거짓 보도자료는 언론에 도배를 하는데, 저희의 진실된 보도 자료는 마이너 신문 4곳에
올라 왔습니다.
홍의원님과 대화녹음파일의 일부를 제일 먼저 들은 기자는 흥분하여 기사를 올렸지만 몇시
간이 지나지 않아 기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짐을 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자기들이 유일하게 CJ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대형 법무법인라고 자랑을 하던 법무법인은,
고소장 접수가 임박하여 이재현 회장을 고소장에서 빼지 않으면 고소장 제출을 안하겠다고 연
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거절 했더니 고소장 제출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를 한다는 문자를 금일 오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사전 문자나 메일로 통보를 하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 Original Message -----

From : jwheo@mobifren.com

To : <didimimi22@naver.com>,caesar1105@naver.com,<jsc5708@hanmail.net>,백은상
장의원보좌관 <lgbackgom@naver.com>,정효상 <hsjeong@mobifren.com>

Cc :

Sent : 2018-10-05 07:22:26

Subject : [FW]Cj주장 및 모비프렌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변호사 제출용)

어제 CJ 주장의 반박자료와 증거자료를 정리하면서 참 힘들게 2년여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방대한 자료의 작성이 대부분 새벽이 많이 보내졌음도 알았습니다.

금년 3월 4월, 온라인을 우리가 가져오고 난 다음부터는 CJ의 비협조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해서는 안될.....

중간 중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리하는 마지막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CJ때문에 글쓰는 솜씨와 자료작성도엄청 잘 하게 되었다는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향하는 거리에 하늘은 흐리지만 참 상쾌한 공기
도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옴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도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찬송가는 차마 따라 부릴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형통하게 하시네"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어제 아침에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재현 회장 반드시 국감 증언대에 설거라고 호언장담하며
그러면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유명연예인도 우리 모델로 이재현 회장이 약속할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내 꿈이 이뤄질거다.

이게 잘 정리되면 내년에는 당신 회갑이고 하니 1월이나 2월에 약 20일에서 30일간 해외 여
행을 멋지게 가지고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밝게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 고생 그동안 많이 하게해서 미안하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어제 자료정리를 하면서

해당 의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Cj 측에서 허위보도를 인정 함 ->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57> 를

클릭하니 기사가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재현 회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지 그외에 어떤 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더욱 다짐을 했습니다.

홍의락 의원님 김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럼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 체택을 하든지, 나의 목숨과 홍의의의 정치생명을 선택하든지 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재현 회장은 반드시 국감장 증언대에 세워야겠다는 확고한 결단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저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단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오래전 부터 했습니다.

아내의 어굴과 딸들의 얼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모습이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홍의락 의원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의님이 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홍의원님의 운명이고 저는 저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제출용 자료를 위의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는 길에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홍의원님께 대한 미움도 없어 졌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홍의원님을 원망하며메일과 문자를 보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결과가 오든 홍의원님도 용서를 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춘 의원님,

저는 장의원님을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힘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 신청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제가 어제 "장의원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홍의원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증인체택을 반대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장의원님, 항상 지금까지와 같이 불의에 맞서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전무,

지금의 이 메일은 정 전무께만 보냅니다.

직원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니까요.

일이 잘 풀리면 공개하지 마시고 잘 안 풀리면 공개 하세요. 직원들에게 믿어 주고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정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대는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신 명예훼손 고발은 오늘 중 고소장 접수되게 해 주세요. 공정위 고발도 변호사님께 특별히 부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 메일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지만, 이제는 곳곳하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 하렵니다.

남이사가 사무실로 왔네요.

눈물 보이면 안되는데.....

슬픈 모습 눈물 흘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 내려 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렵니다.

나의 목숨은 내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게 슬프지만, 미움이 없어서 참 감사하네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드림.

허주원/대표이사

(주)모비프렌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
Korea 730-300

Mobile : 010-7352-5270

Tel : 054-474-2220

Fax : 054-474-2251

E-Mail : jwheo@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

Juwon Heo / CEO

MobiFren Co.,Ltd

88, Indong52gil, Gumi, Gyeongbuk,

Mobile :+82 10 7352 5270

Tel : +82 54 474 2220 (ext.400)

Fax : +82 54 474 2251

Email : jwheo@mobifren.com

Website www.mobifren.com

(주)모비프렌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Bldg,437,Teheran-ro,Gangnam-gu,Seoul, Korea

(삼영빌딩 3층)

TEL : 02-336-2220

MobiFren Co.,Ltd, Seoul Office

3F,Samyoun

TEL :+82-2-336-2220

(주)지티텔레콤이 (주)모비프렌으로
Telecom changed to MobiFren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before.

Please be noted that the company name of GT

All the other information are the same as

----- Original Message -----

From : jwheo@mobifren.com

To : 정효상 <hsjeong@mobifren.com>, 이응지 <ejlee@mobifren.com>, 남익희 <ihnam@mobifren.com>, 서진윤 <jyseo@mobifren.com>

Cc : 석지원 <jwseok@mobifren.com>

Sent : 2018-10-05 02:51:10

Subject : Cj주장 및 모비프렌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변호사 제출용)

자료를 재 작성하였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피곤하네요.

이응지 이사는 첨부 3의 **CJ주장 반박** 문서에서 첨부 3과 첨부 4 답변바랍니다.

다른 업무에 앞서 최우선 적으로 해 주세요.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뭔가 냄새가 나요.

공실장도 주범이네요.

허주원/대표이사

(주)모비프렌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
Korea 730-300

Juwon Heo / CEO

MobiFren Co.,Ltd

88, Indong52gil, Gumi, Gyeongbuk,

(주)모비프렌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Bldg,437,Teheran-ro,Gangnam-gu,Seoul, Korea

(삼영빌딩 3층)

TEL : 02-336-2220

MobiFren Co.,Ltd, Seoul Office

3F,Samyoung

TEL :+82-2-336-2220

2018년 10월 9일 오전 11시 58분 - 12분 도착

[illegible]

다른 법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후 2:36

2후 2:55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후 1:51

drive.google.com

www.youtube.com

오류 7:08

공개합니다
일방적 해지
못합니다.